

“감사-준법 협력해야 내부통제 부실 예방… 제도 보완해야”

메트로신문, 감사·리스크 관리 포럼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책무구조도, 실무 예로 반영 안돼
시행 1년째 가이드라인 기다려”

백상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사 합리적 판단으로 임무 수행시
손해 발생해도 결과적 책임 없어”

“감사부서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준법부서와 공유가 없다면 리스크관리
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제도적 보
완이 필요하다.”

“개정된 상법은 이사회에 책임을 더
무겁게 묻는다. 사회적, 인간적, 감정적
관계까지 모두 독립된 체계를 갖춰나가
야 한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은 16일 서
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올해 두 번
째 ‘감사·리스크 관리 포럼’을 개최했
다. 이번 포럼에는 주요 금융사 감사 40
여명이 모여 새 정부에서 공포된 상법
개정안과 책무구조도 도입 등에 발맞춰
금융사의 ‘리스크(위험) 관리’ 중요성을
상기하고, 방향성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2개의 주제 발표로 구성
됐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시목 법무법
인 율촌 변호사는 ‘책무구조도 시행과
영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책무
구조도는 금융권에서 끊이지 않는 배
임, 횡령 등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새롭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1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감사·리스크 관리 포럼’에서 강연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게 도입한 규제 장치다. 임직원마다 책
무를 명확히 해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다.

김 변호사는 “책무구조도는 법안 발
의 후 본회의 통과까지 6개월도 채 걸리
지 않았는데, 빨리 통과된 만큼 실무에
서의 애로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시범 실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
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당
국의 가이드라인과 설계를 기다리고 있
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은행법상 금융
사고 예방 의무를 살펴보면, 은행법 제
34조의3에 따라 은행은 대리점, 국외현
지법인 및 국외지점을 포함한 지점에 대
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규정에 대해 해외 지점과 해외 자회사
까지 국내 회사에서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쟁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
호사는 “이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애매한
해설서와 Q&A(질의응답)가 나왔고, 법

적 근거나 논리가 타당하지 않았다”며
“국내 모회사와 관계에서 국내 모회사가
자회사의 내부통제를 관리하지 못했다고
해서 책임지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감사부서에서 감독당국에 금융사고를
보고했음에도 준법부서에서 내용을 모르
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감사부서가 독
립적이어야 하는 건 맞지만 준법부서와
공유가 이뤄지지 않으면 리스크 예방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백상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상법 개정의 내용과 영
향’이란 주제 강연했다. 전날 국무회의
에서 공포된 상법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
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
익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
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
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다.

백 변호사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
용을 보면,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
이 무관하다고 보는 견해는 없고, 결국
은 회사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의미 안
에서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
다는 의미가 내재돼 있다”며 “다만 충실
의무는 수단채무일 뿐 결과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이사가 합리적인 판단
에 따라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
각되는 방법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면,
결과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원이 그
잘못을 탓할 수 없다는 이론”이라고 설
명했다.

독립이사와 관련해서는 “거래소 상
장규정에 독립이사의 요건을 규정해 뒀
지만 그에 더해 ‘이사가 독립적이었는
지 여부’를 법원의 해석에 따라 사후적

으로 판단하도록 했다”며 “상황에 따라
지배주주 이익과 소수주주의 이익을 충
돌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이사의 독립성 판단
에 대해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적, 인간적, 감정적 관계가 모두 독립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트로신문은 리스크 매니지먼
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반영해 올해
포럼의 범위를 기존 감사에서 ‘감사와
리스크 관리’로 확대했다.

이장규 메트로신문 대표는 개회사에
서 “성공한 자의 오만을 역사학자 토인
비는 그리스어로 ‘휴브리스(Hubris)’라
고 불렀다. 성공한 기업이 있는 국가나
기업·조직·정당이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오류’”라며 “리스크 관리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조직이나 리더가 과거의 성공에
도취해 있거나, 오만에 빠지거나, 교활한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는지 끊임없이 살
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기
업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감사
와 리스크 관리는 마치 병력을 지키는 보
초병과 같다는 부연이다.

이순우메트로신문 언론윤리실천위원
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가 살다보면 갑
자기 아픈 순간이 생기고, 기업들도 같
다. 기업이 아플 때, 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리스크 관리를 위해
는 환자의 정확한 증세를 진단할 수 있는
명의가 돼야 하고, 명확한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나오는 것”이라고 짚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1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서 계속

고배당·자사주 소각 등 장기적 투자 여력 줄여 미래성장 제동 ‘역효과’

지난해에도 66곳이 공개적인 주주
행동주의 캠페인 대상이 됐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동학개
미운동’으로 개인투자자가 늘면서 주
주환원을 앞세운 행동주의 펀드가 힘
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새 정부가
증시 부스트업과 주주가치 제고에 나
서면서 올해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주
환원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
도 나온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행동주의 펀드
에 호응하면서 주주환원에 적극 나서
는 기업도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발
표한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에 따
르면 지난달 말까지 올해 자기주식 소
각 금액은 15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인 13조 9000억 원을 넘어섰
다. 현금배당 결정 금액도 37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34조 2000억 원 대
비 10% 증가했다.

기업이 고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을 확대하면 단기적으로 투자자의
부는 늘어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투
자 여력을 줄여 미래 성장을 해치는 역효
과가 불가피하다. 장하준 영국 런던대 교
수는 지난 4월 국회 강연에서 대기업의
전횡도 문제지만, 주주 환원율이 미국처
럼 90% 정도로 높아져, 제조업체 등이
현금인출기가 되는 순간 우리나라는 끝
난다고 경고했다.

/원관희 기자 wkh@

취업자수 18만명 늘었지만… 청년층 취업난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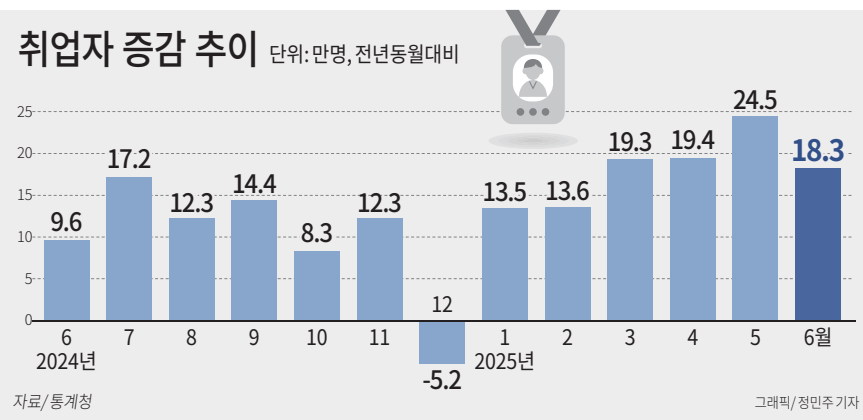
통계청, 6월 취업자수 2909만명
농림어업·건설업·제조업서 감소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하
고 건설업·제조업 일자리 부진이 지속
됐다. 또 29세 이하 고용률은 14개월 연
속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
는 2909만 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8
만3000명(0.6%)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폭은 최근 4개월 사이 가
장 작았다. 올해 3월(+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19만 명대에서 5월(+24
만5000명)에 20만 명대로 올라섰으나 6
월에 +18만 명대로 폭이 축소됐다.

산업별로,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
업(+21만6000명), 전문·과학및기술서



비스업(+10만2000명) 등에서 취업자
가 늘어난 반면, 농림어업(-14만1000
명), 건설업(-9만7000명), 제조업(-8만
3000명) 등에서는 줄었다.

특히 건설업은 14개월째, 제조업은
12개월째 감소했다. 농림어업도 5개월
연속으로 취업자가 줄었다.

제조업(5월 -6만7000명→6월 -8만
3000명)은 내수 부진과 통상 리스크에
따라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됐다. 농림
어업(5월 -13만5000명, 6월 -14만1000
명)은 강수 등 기상 영향으로 2015년 11
월(-17만2000명) 이후 약 10년 만에 가
장 큰 폭으로 취업자가 줄었다. 다만 건

설업은 취업자 감소폭(5월 -10만6000
명→6월 -9만7000명)이 축소됐다. 연령
대별로는 60세 이상(34만8000명), 30대
(11만6000명)에서는 증가했지만 20대
(-15만2000명), 40대(-5만5000명), 50
대(-5만3000명)에서는 감소했다.

15~29세 취업자는 362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17만3000명 감소했고, 감
소폭도 5월(15만명)에 비해 확대됐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를 보면 임
금근로자는 2257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만4000명(1.4%) 증가
했지만, 비임금근로자는 651만3000명
으로 13만명(2.0%) 감소했다.

15~29세 고용률은 45.6%로 전년동
월 대비로 1.0%포인트(p)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1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환율 하락… 수출·입 물가 3개월 연속 ↓

한은, 수출 물가지수 1.1% 하락
농림 수산물 1.8%, 공산품 1.1% ↓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 물
가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국제 유가
가 한달 전과 비교해 8.7% 상승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1360원대로 내린 영향
이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
가지수 및 무역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126.95로 한 달 전과
비교해 1.1% 하락했다. 수출물가지수
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수출 물가 지수가 하락한 이유는 원·
달러 환율이 내린 영향이 컸다. 원·달

러 환율은 지난달 1366.95원으로 전월
(1394.49원)과 비교해 27.54원 내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림 수산물은
농동수산물(-1.5%)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8% 하락했다.

공산품은 화학제품 (-1.8%), 컴퓨
터·전자 및 광학기기(-1.8%) 등을 중
심으로 1.1% 낮아졌다.

수입물가지수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며 전
월 대비 0.6% 하락했다. 한국으로 수입

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월평균 가격은 지난달 배럴당 69.26달
러로 전월(63.73달러) 대비 8.7% 상승
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지정학적 불안이 유가상승
을 초래했다.

유가 급등의 여파로 원재료는 원유
(6.5%)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5% 뛰었다. 중간재는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원·달러 환율이 감소하
며 1.6% 하락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